

세계 학자들, 老 연구자 위해 학회 열다

인도미술사 전문가 美 스팅크 교수 팔순 헌정 국제학술회의

아잔타 석굴 연구에 평생을 바친 한 연구자의 팔순을 기념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5월 24일 서울대 박물관에서는 아잔타 등 인도미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윌터 스팅크 명예교수(美 미시간대·80)에게 헌정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문화연구소(소장 이주형)와 청주예술사학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에는 한·중·일 미술사학자 100여명이 함께 했다.

팔순 등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는 한국에서는 흔하디 흔하디 드물다. 또 한국·미국·중국 등 세계의 학자들이 특정 연구자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은 희유하기까지 하다.

학술회의는 스팅크 교수의 '아잔타 석굴의 연구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했다.

스�팅크 교수는 원고 없이 슬라이드를 보며 인도건축 구조와 아잔타 석굴의 아름다움을 청중들에게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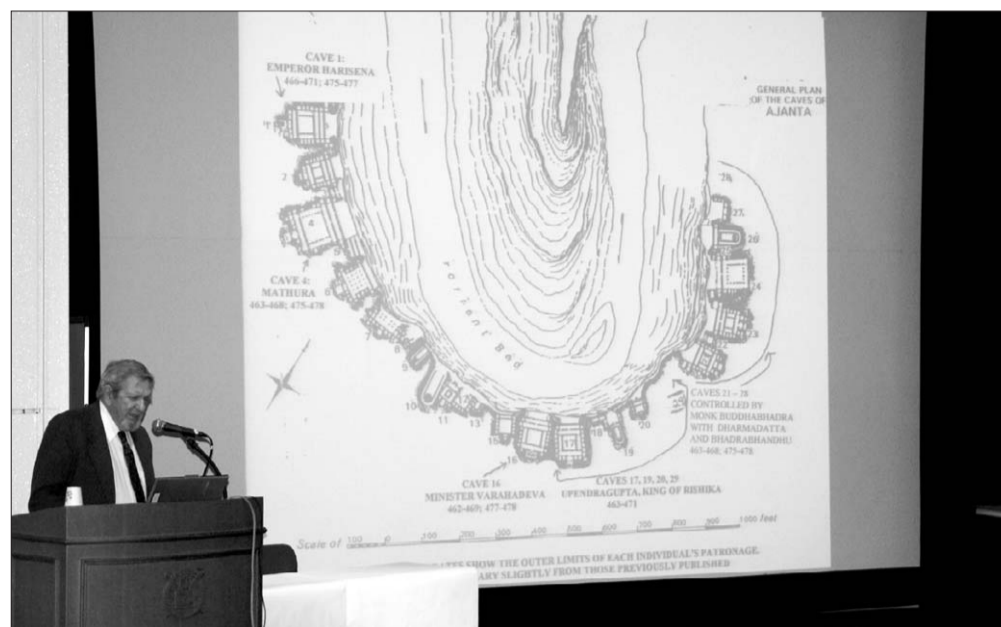
"아잔타 석굴은 200여년전 한 영국군 병사에게 발견됐다.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후 150년까지 서부인도 전역에서 불교가 융성했던 시기에 조성된 석굴은 그 후 300년 동안 불교의 쇠락과 함께 잊혀졌다. 462년 아잔타에 사는 바카타카 왕조의 하리세나 왕 후원아래 광목할 불교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초기의 석굴이 지역공동체가 이뤄낸 노력의 결실이었다면, 바카타카 시기의 석굴은 궁정 후원자들을 위해 지어졌다.

478년 바카타카 왕조의 하락으로 후원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불한해진 승려와 신도들은 장인들에게 불상을 조각하고 불화를 그리게 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복덕을 얻고자 했다. 급기야 480년대 지원이 끊긴 아잔타는 오랜 침묵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윌터 스팅크 교수의 기조강연 및 <아잔타: 잊을 수 없는 역사와 도표>(Ajanta: A Brief History and Guide)에서 발췌.

피아 브랑카초 교수(美 드레스데인)는 '데칸고원 초기 석굴의 재조명'을 발표했다. 브랑카초 교수는 석굴 사원을 지방주의(regionalism)와 의 고주의(archaism)에 입각해 지리적 영역에 따른 발달양상을 비교했다.

아르빈드 잠케드카르 명예교수(印 뭄바이 소마야센데)는 '바카타카 시대의 잘 알려지지 않은

5-6세기 석굴'을 통해 인도 석굴의 종교양상 변화에 따른 변화를 보여줬다.



5월 24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윌터 스팅크 교수가 아잔타 석굴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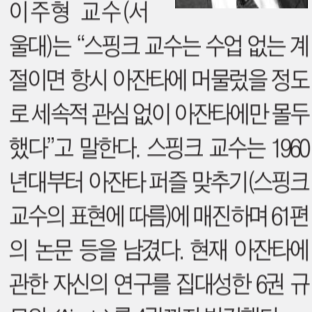
야구치 나오미치 교수(日 가나자와대)는 '아잔타 석굴 서쪽 그룹 전경 축실의 구조 변천'을, 리 총평 교수(中 북경대)는 '인도 석굴의 중국화'를 발표했다. 리 교수는 산스크리트어로는 비하라(vihara)로 불리며 승려의 주거용으로 사용된 레나(rena)와 산스크리트어로 차이티야(Chaitiya)로 불린 탑묘굴, 산스크리트어로 만다파(mandapa)로 불린 방형굴, 물을 저장했을 작은 지하연못인(podhi)로 나는 뒤

중국화된 과정을 소개했다. 드니즈 라이디(美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큐레이터)는 '5세기 후반의 정광불, 운광석굴, 그리고 불교도상'을 통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소장된 불상을 시작으로 수인 등 불상의 특징을 정리했다.

한편 김선경씨(美 남캘리포니아대 강사)는 '영천사 탐림 연구 시론'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삼계교(三階敎)의 대주성글과 묘탑부조를 통해 중국 상장례 풍속을 소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nia.com

#스핑크 교수는 아잔타의 편년(編年)과 구조적인 특성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다. 이주형 교수(서울대)는 "스핑크 교수는 수업 없는 계절이면 항상 아잔타에 머물렀을 정도로 세속적 관심이 아잔타에만 머물렀다"고 말한다. 스팅크 교수는 1960년대부터 아잔타 퍼즐 맞추기(스핑크 교수의 표현에 따름)에 매진하며 6편의 논문 등을 남겼다. 현재 아잔타에 관한 자신의 연구를 집대성한 6권 규모의 <Ajanta>를 4권까지 발간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nia.com

불교통해 인지치료 가능

김성철 교수,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서 발표

"번뇌 망상의 제거를 통해 '인지 장애'를 치유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불교적 가르침에 의한 번뇌·망상 제거로 인지치료의 효과를 거둬와 동시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김성철 교수(동국대)는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연기론의 인지치료적 활용'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인지치료는 '인지나 생각의 패턴'이 부적응적인 '행위와 감성의 반응'을 일으킨다고 추정하는 심리사회적 치료로, 1960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아론 벡 등에 의해 창안된 것. 김 교수는 "불전에도 '인지의 전환'을 통해 '정서의 문제'를 치료할 여가 있다"며 난다(Nanda)와 고타미(Gotami) 여인의 예화를 소개했다. 그는 "두 가지 예화 모두 연기(緣起)를 설명한다"며 심리치료와 함께 깨달음을 지향할 수행법으로 연기론에 바탕한 인지치료 기법을 소개했다.

김성철 교수는 "속가 부인 순다리에 대한 음욕 때문에 환속하려는 난교대 순다리의 아름다움을 확인해 줬다. 다시 천녀들을 통해 순다리가 추하게 보이게 했다. 난다가 천녀들

과 살고 싶어 정진 했지만 다시 부처님이 보여준 무간지옥을 보고 발심해 아라한이 됐다"는 이야기를 이열치열의 유전연기(流轉緣起)로 정리했다.

김 교수는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고타미 여인에게 부처님은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 오라고 했다. 고타미는 겨자씨를 구하는 과정에서 동병상련의 위로를 얻었다"고 말하며 고타미 여인 이야기를 동병상련의 환멸연기(還滅緣起)로 정리했다.

김성철 교수는 예화의 연기구조를 아론 벡 박사의 인지치료 사례에 적용하며, "절대긍정과 절대부정의 조망을 발견해 고착에서 벗어날 때 고통(과거)의 인습적 인지체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철 교수의 논문은 불교의 핵심 키워드인 '연기'를 심리치료에 적용해 불교심리치료학의 가능성과 포교의 비전을 보였는데 의의를 가진다.

조동섭 기자



"한국선 전래는 범랑과 신행"

김호귀 교수, 한국선학회서 주장

"한국에 선법이 전래된 기원은 조계종 종조 도의 국사가 아니며 범랑과 신행 두 스님이다. 그들이 전한 선법도 남종계가 아닌 북종계"라는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김호귀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5월 22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선학회(회장 현각)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초기 한국선법의 전래와 그 성격'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선 전래에 범랑과 신행이 언급된 예가 처음은 아니지만 김 교수의 연구는 오늘날 조계종 종조 도의 국사에 관련된 한국선법 전래의 오류를 지적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윤월 스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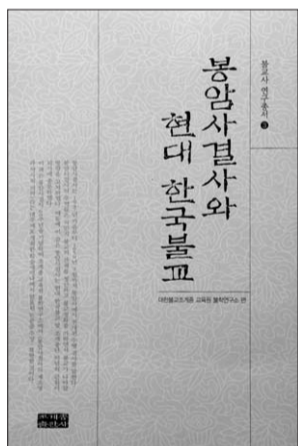


국대 사회교육원이 '중국 초기 선종의 사상과 수행'을, 강항숙씨(동국대 박사과정 수료)가 '해바라기 탄트라'의 관정에 관한 고찰'을, 황인규 교수(동국대)가 '선각국사 도선 종풍의 계승과 전개'를 발표했다.

발표 후 정기총회에서는 김영두 교수(원광대)가 제5대 한국선학회 회장에 추대됐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봉암사 결사' 학술서 발간



1947년 50여명의 승려가 모여 왜색불교 청산과 수행풍토 진작을 위해 시작했던 봉암사 결사에 대한 조계종단 최초의 연구성과물이 책으로 출간돼 화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이 발간한 <봉암사결사와 현대 한국 불교>는 2007년 10월 18일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기념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

김광식 교수(부천대)가 '봉암사결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봉암사결사에 대한 역사적 정리를 시도한 것

을 비롯해, 혜정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목정배 교수(前 동국대), 김호성 교수(동국대), 서재영 연구원(조계종 불학연구소) 등이 봉암사결사의 의례적 조망과 윤리·철학적 분석, 주장자던 성철·청담·자운 스님에 대한 연구를 정리했다.

한편 봉암사결사에 대한 유일한 증언으로 1995년 해인사 승가대의 <수다라>에 게재됐던 성철 스님의 법문과 봉암사결사 참고문헌을 담아 연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했다.

조동섭 기자

청송 대전사 보광전 보물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이강준)은 5월 27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2호 경북 청송군 대전사 보광전의 보물지정 예고를 발표했다.

대전사는 신라 문무왕 12년(672) 의상 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보광전은 1976년 중수 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해 1672년 건축해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조선 현종 13년(1672)에 중창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사 보광전의 구조는 화강석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약간 기울어진 원주를 세워 구성했고, 내부 구

조는 우물천장 형식으로 앞뒤에 중단을 두고, 양측면에는 빗천장을 설치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전사 보광전은 건축연대가 명확한 조선중기 다포양식의 목조건물로서 공포양식 등에 있어서 중기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회화성이 뛰어난 내부단청과 벽화를 비롯해 조선중기 불교미술의 중요한 자료로 국가 지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조동섭 기자

현장스님과 함께 천상의 나라 히말라야로 가자

7월 31일 ~ 8월 8일 (7박 8일)

₩1,750,000 (계약금 20만원)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호텔(2인 1실), 차량,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 한국어 가이드, 식사(조·중·석)
 - 한국출발 공항세 및 출국세, 전경보험료, 네팔현지 공항세, 유류할증료
 - VISA FEE, 여행자 보험, 가이드/기사님 포함, 광주/인천 리무진 버스(왕복)

- 룸비니 - 부처님 탄생지·석가사
- 치트원 국립공원 - 야생동물의 보고
- 사랑코트 - 히말라야를 아름답게 볼수 있는 곳
- 네팔의 문화유적
 - 더르바르 광장·쉬름부나트·머하데브 동굴
 - 파탄왕국·버티푸르·보우터나트
- 인천공항출발 카투만두행직항 (대한항공)

주최 호남불교문화원, 티벳박물관 주관 불교전문기회 카일라스

후원 BBS 광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광주·전남지사 문의 062)384-3009 Fax. 062)522-5002

*참가접수마감은 6월 30일(금)까지입니다.

대승기신론 강좌 안내

출가스님들만의 공부모임 경전연구회에서 대승기신론 강좌를 개설합니다.

- 강 주 : 은혜사 승가대 학장 지인 큰스님
- 장 소 : 서울 옥수동 미타사내 대승암
- 개 강 : 2008년 6월 17일(화요일) 오후 3시 매일 셋째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수 강 료 : 6개월 30만원(교재 무료제공) ■ 수강신청 : 6월 10일 까지(입금후 전화요망)

경전연구회 창립 목적

- 불조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법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대덕 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전통을 계승발전 시킨다.
- 조계종 산하 불교대학의 교수사를 양성 전종도의 교육·조직·체계에 기여한다.
-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창조하고 포교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다.
- 계좌번호 : 우체국 102608-01-001671(예금주:경전연구회)
- 문의전화 : 회장 011-420-7838(지장 스님) 총무 010-7963-7070(법정 스님) 재무 016-9669-3917(정당 스님)

뜻을 함께하는 조계종(비구·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으로 옮겨 청정승가의 기풍을 확립하는 디딤돌이 됩시다.

경전연구회 회장 지장 합장